

Does the Target Matter? Evidence from Labor Supply Decisions of Fishermen

최이슬

1. (검토 배경)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이 지나치게 낮거나 음수(-)로 추정되는 퍼즐(puzzle)을 해소하기 위해 목표소득(target income)을 달성하고자 하는 심리를 고려한 행동경제학 모형이 제시되었다(Camerer et al., 1997). 이후 학계에서는 목표소득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후속연구가 있었으나, 목표소득(준거점)은 노동공급자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주관적인 수치이므로 관측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는 대리변수 등을 활용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목표소득이 노동공급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는 데 그쳤다.
2. (데이터 및 분석결과) 본 연구는 ‘관측된 목표소득’(준거점)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동공급이 준거점 의존 선호(reference-dependent preferences) 행태를 띤다는 점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미국 알래스카 어업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선장이 항해 전 직접 기재한 ‘목표 어획량’ 자료를 통해 목표소득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항해 일지자료와 결합하여 노동공급(조업 시간)이 목표수준(목표 어획량)에 의존함을 보였다. 즉 목표 달성 전에는 계획보다 항해 기간을 늘리면서 서까지 조업(근로)을 이어가지만 목표 달성 후에는 조업(근로) 확률이 크게 감소하는 준거점 의존 선호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준거점을 기준으로 노동소득의 한계효용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측정하는 손실 회피도(loss aversion)는 2.5~3.4로 추정되었다. 이는 소득의 절대적 수준이 아닌 준거점 대비 상대적 수준이 실제 노동 공급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개인 간 손실 회피 성향의 이질성을 허용하는 혼합 로짓 모형 결과에서도 표본 내 다수가 손실 회피 성향을 띤다는 점을 보였다.
3. (시사점) 노동 공급을 장려하는 정책을 설계할 때 목표소득 달성 여부에 따라 정책 효과가 비대칭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령 경제주체들이 목표소득을 달성하기 전이라면 작은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더라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심리로 인해 노동 공급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미 목표소득을 누리고 있다면 추가 노동시간에 대해 더 큰 유인을 제공해야만 노동 공급 장려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용장려금이나 소득세율 변화를 통해 노동공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정책효과가 목표소득 달성 여부에 따라 비대칭적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을 시사한다.

문의처: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최이슬 부연구위원 (☎02-759-5435)

※ 이 연구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の内容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